

단편소설집 <삼설기(三說記)>의 판본에 대한 일 고찰

李 祥 憲*

I. 緒論 : 삼설기 금수전 토생전 사이의 관계

삼설기는 '戊申十一月日由洞新刊'이라는 刊記로 말미암아 有刊記本 방각 소설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인 1848년에 간행된 것으로 언급되는 작품이다. 그러나 새로운 자료의 발견으로 인하여 현재는 임경업전(1780년), 전운치전(1847년)에 이어서 간행된 작품이라 하겠다.¹⁾

먼저 김태준은 삼설기를 소개하면서 3권 6편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그 명칭의 유래를 설명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니, 김태준이 본 것은 현전 오한근소장본과 동일한 판본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들 6편의 작품에 대하여 그 중 몇몇은 후인의 翻入이 아닐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²⁾

* 인체대 교수

1) 삼설기의 간기인 '戊申十一月日由洞新刊'을 1848년으로 비정한 것은 정확한 것이다. 그러나 삼설기보다 한 해 빠른 1847년에 해당하는 '丁未仲春由谷新刊'의 간기를 가진 전운치전 <37장본>이 있다는 점, 그리고 '歲庚子孟冬京畿開板'이라하여 1780년에 해당하는 간기를 가진 임경업전 <47장본>(이는 현전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를 보각한 <45장본>이 있다는 점에서 刊記를 가진 한글 방각소설 가운데 最古本으로 삼설기를 언급하는 것은 자제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拙稿, 「京板坊刻小說 板本 研究」, 서울大 博士學位論文, 1995 참조.

2) 金台俊, 「增補朝鮮小說史」, 學藝社, 1939, p.141.

이러한 의문은 3권 6편—곧 각권 2편—으로 이루어진 삼설기만을 확인할 수 있었던 김태준 당대에 있어서는 당연히 제기될 수 있는 의문일 것이며, 각권 3편으로 이루어진 삼설기를 확인할 수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왜 삼설기(三說記)라고 하였는지 명쾌히 설명하였을 것이다.

각권 3편으로 이루어진 삼설기를 확인한 김동욱은 '九篇 三冊 每冊 三說로 「三說記」란 이름이 붙은 것'이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³⁾ 每冊 三說이란 점에서 삼설기라고 불린다는 점에서 본다면 每冊 二說로 되어 있는 판본—이것이 현전 오한근소장본이다—은 每冊 三說로 된 판본—이것이 파리동양어학교소장본이다—이 아니기에 차라리 「二說記(?)」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른다.

삼설기는 특정한 한 작품의 이름이 아니라 여러 작품이 실려 있는 작품집의 이름이라는 점에서 每冊 二說로 된 판본 역시 삼설기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겠다. 이 점에서 본다면 삼설기는 본격적인 상품의 형태로 시장에서의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된 최초의 단편소설집이라는 점에서 분명한 의미를 지닌다. 단편소설집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실려 있는 작품들은 그 내용에 있어서 공통적인 특징은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이들 단편의 이름을 보면 '삼식횡입황천괴' '오흐더장괴' '황주목수계조괴' '서초피왕괴' '삼조원종괴' '노처녀가' '황시결송' '녹처수연회' '노섬상좌괴'로 되어 있어 어떠한 일관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이들이 단편소설집의 형태로 편집되어 함께 출판되었다는 사실은 당대에 있어서 독자들의 소설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반증한다 하겠다.

현재 삼설기의 판본은 다양한 형태로 전해지고 있다. 분권 체재의 변화

3) 金東旭, 「解說」, 『短篇小說選』, 民衆書局, 1976, p.15. '삼설기 권지상' 곧 <상27장본>만 놓고 본다면 단편들의 제명이 '삼식횡입황천괴' '오흐더장괴' '황주목수계조괴'처럼 모두 '—괴(記)'로 끝나고 있어 이러한 해석이 타당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점에서 본다면 미지의 판본인 <하27장본*>은 '서초피왕괴' '삼조원종괴' '노섬상좌괴' 또는 '○○○괴'로 구성될 수도 있지 아니한가 하는 추정이 가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구체적 증거도 현재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삼설기에 실려 있는 삼조원종괴, 노처녀가, 녹처수연회, 노섬상좌괴는 이것이 편명임을 나타내기 위해 앞에 '○'과 같은 기호를 덧붙이고 있다.

로 말미암아, 삼설기의 일부—‘황식결송’과 ‘녹쳐스연회’—가 떨어져 나가 <금수전>이라는 제명으로 인행되는가 하면, ‘노섬상좌기’는 <토생전>의 한 부분으로 인행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하여 삼설기의 판본 변모 양상은 삼설기의 검토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금수전, 토생전을 포함하여 함께 검토해야만 삼설기의 판본 변모 양상을 총괄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삼설기라는 제명으로 인행된 자료로는 파리동양어학교에 소장된 삼설기,⁵⁾ 오한근소장본 삼설기,⁶⁾ 대영박물관 소장 낙질본 삼설기⁷⁾를 확인 할 수 있으며, 금수전,⁸⁾ 토생전⁹⁾으로도 삼설기의 일부가 인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삼설기의 구성방식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¹⁰⁾ 그러나 지금까지의 논의는 삼설기 전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논의라기보다는 이에 수록된 몇몇 단편들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나온 논의라는 한계가 있으며, 아울러 동양어학교본 삼설기의 실상이 잘 알려져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나온 논의라 하겠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삼설기의 판본 변모 양상을 살피기 위해 삼설기뿐만 아니라 금수전, 토생전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동양어학교본 삼설기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이의 해결을 시도하기로 한다.

- 5) 이는 앞으로 <동양어학교본>이라고 지칭하기로 한다. 이를 영인한 자료는 현재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 역시 이를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라 마이크로필름의 형태로 확인한 것이기에 논의 과정에 미진한 부분이 있음을 밝힌다. 이러한 부분은 추후 원본의 직접 확인을 통하여 검증하기로 한다.
- 6) 金東旭(編), 景印 古小說板刻本全集 卷一, 羅孫書屋, 1973, pp.1-27(오한근소장본). 이하 여기에서 인용한 경우는 ‘전집 일. 1-27(오한근소장본)’ 또는 ‘(1:1-27)’의 형식으로 표시한다.
- 7) 전집 사, 259-71(대영박물관본).
- 8) 전집 일, 327-36(서울대도서관본). 이와 동일한 판본이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C15-A52).
- 9) 전집 삼, 369-76(김동욱소장본). 여기에 <노섬상좌기>가 함께 인행되었다.
- 10) 이를 집중적으로 검토한 작업은 閻燦, 「조선후기 우화소설의 다층적 의미구현양상」, 서울大 博士學位論文, 1994; _____. 「<노섬상좌기>의 간행과 유통에 관련된 문제」, 「茶谷李樹鳳博士停年紀念 古小說研究論叢」, 景仁文化社, 1994 등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

II. 동양어학교본 삼설기 : <상27장본> <이26장본> <삼27장본>

현전 판본을 검토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해야 할 것은 과리 동양어학교에 소장된 삼설기이다. 이 판본의 표지에 나타난 題簽은 '삼설기 상'([자료 1] 참조) '삼설기 하'([자료 2] 참조) '삼설기 중'([자료 3] 참조)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권수제와 권차표시에는 각각 '삼설기 권지상'([자료 4] 참조) '삼설기 권지이'([자료 5] 참조) '삼설기 권지삼'([자료 6] 참조)으로 각각 표시되어 있다. 또한 판심제에는 '삼설기上' '삼설기하' '삼설기三'으로 표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각각 어떻게 지칭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여기에서는 권수제와 함께 기록된 권차표시를 중시하여 그 차례를 정하고, 이에 따라 이를 각각 <상27장본> <이26장본> <삼27장본>으로 지칭하여 서술하기로 한다.

<상27장본>¹¹⁾의 권수제 및 권차표시는 '삼설기 권지상'으로 나타나며, 반엽 14행, 상화문어미, 판심제는 '삼설기上'으로 상백구에 위치하고 있다. '삼시횡입황천기'가 제1장 전엽 2행부터 제9장 후엽 4행까지, '오후더장기'가 제9장 후엽 5행부터 제17장 후엽 14행까지, '황쥬목스제조기'가 제18장 전엽 1행부터 제27장 후엽 9행까지 서술되고 있으며, 남은 부분은 여백으로 처리하고 있다.¹²⁾

<이26장본>¹³⁾의 권수제 및 권차표시는 '삼설기 권지이'로 나타나며, 반엽 14행, 상화문어미, 판심제는 '삼설기하'로 상백구에 위치하고 있다. 제

11) 표지에는 '삼설기 상'으로 표시되어 있다. 또한 '삼'이라는 글자 우측에 'Vol.1'이라 부기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자료 1] 참조).

12) 분권체재를 달리한 오한근소장본에는 이 여백에 계선이 두 개 남아 있다. 필자가 확인한 동양어학교본 마이크로필름에는 이들 두 계선 사이의 여백에 해당하는 부분을 깎아내지 아니하고 판목을 그대로 남겨두어 墓等으로 처리하고 있다. 원래는 이 부분에 간기를 새길 예정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3) 표지에는 '삼설기 하'로 나타나고 있으며, '하'라는 글자 옆에 조그만 글씨로 '중'이라 고친 흔적이 있다. 또한 '설'이라는 글자 우측에 'Vol.2'라 부기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자료 2] 참조).

26장의 경우만 판심제가 ‘삼설기하二’로 나타나고 있다. ‘서초판왕기’가 제1장 전엽 2행부터 제7장 후엽 13행까지, ‘삼주원종기’가 제7장 후엽 14행부터 제18장 후엽 14행까지, ‘노처녀기’가 제19장 전엽 1행부터 제26장 전엽 13행까지 서술되고 있으며, 남은 부분은 여백으로 처리하고 있다. 권차표시가 ‘권지이’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심제에는 이것이 ‘하’로 나타나고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¹⁴⁾

<삼27장본>¹⁵⁾의 권수제 및 권차표시는 ‘삼설기 권지삼’¹⁶⁾으로 나타나며, 반엽 14행, 상화문어미, 판심제는 ‘삼설기三’¹⁷⁾으로 상백구에 위치하고 있다. 제21장의 판심제는 좌우가 바뀐 모습으로 새겨져 있는데 매우 서투른 각자체이다. ‘황식결송’이 제1장 전엽 2행부터 제10장 전엽 5행까지, ‘녹쳐스연회’가 제10장 전엽 6행부터 제20장 후엽 3행까지, ‘노섬상좌기’가 제20장 후엽 4행부터 제27장 전엽 6행까지 서술되어 있다. 남은 여백에 두개의 계선을 남기고 있으며, 계선 사이에 ‘戊申十一月日由洞新刊’이라는 간기가 새겨져 있다. ‘녹쳐스연회’가 수록된 제10장 이하 제20장까지의 각자체는 여타의 다른 부분에서 사용된 각자체와 뚜렷한 차이를 보여준다.

판심제에 기록된 ‘삼설기上’ ‘삼설기하’ ‘삼설기三’을 고려한다면, 처음에는 <상27장본>과 <이26장본>만으로 구성된 上下兩卷本을 기획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다가 <삼27장본>을 추가하면서 上中下三卷本으로 기

14) 이런 점에서 보면 권차표시인 ‘권지이’는 원래 ‘권지하’였으나 <삼27장본>의 간행으로 말미암아 ‘하’를 ‘이’로 수정한 것이 아닌가 한다.

15) 표지에는 ‘삼설기 중’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중’이라는 글자 옆에 조그만 글씨로 ‘하’라고 고친 흔적이 있다. 또한 ‘설’이라는 글자 우측에 ‘Vol.3’이라 부기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자료 3] 참조).

16) 이것이 ‘권지삼’인지 ‘권지사’인지는 명확하지 아니하다. 동일한 행에 나타나고 있는 ‘삼설기’의 ‘삼’([자료 6]의 ① 부분 참조)과 ‘권지삼’의 ‘삼’([자료 6]의 ② 부분 참조)은 그 형태가 너무나 다른 모습이기에 ‘삼’이라기보다는 ‘사’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그러나 판심제에서 이를 ‘三’으로 표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에 잠정적으로 이를 ‘삼’으로 읽는다. 원래는 권지사로 표시한 것을 권지삼으로 수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원본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17) ‘三’으로 뚜렷하게 새겨진 부분은 중간에 실린 <녹쳐스연회>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남은 부분은 ‘二’에 붙으로 가필하여 ‘三’으로 만든 것 같다. 이는 가필로 인하여 먹이 번진듯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권수제의 ‘권지삼’의 부분이 ‘권지사’에 해당한다면 ‘四’의 세로에 속하는 획을 산략하고 가필하여 ‘三’으로 만든 것이라 하겠다.

획, 이를 一二三으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上中下로 구분하기 위하여 <삼27장본>의 표지에 이를 '삼설고 중'으로 표시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표지의 제첨에 나타난 권차를 중시하면 <상27장본> <삼27장본> <이26장본>의 순서로 간행된 것으로 판단하기 쉽지만, 실제 간행의 순서는 <상27장본> <이26장본>¹⁸⁾ <삼27장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삼27장본>의 말미에 기록된 '戊申'이라는 간기는 삼설기 전체의 간기가 아니라 <삼27장본> 엄밀하게 말하면 <삼27장본>의 '황식결송'과 '노섬상좌기'만의 간기라 하겠다.¹⁹⁾ 이런 점에서 본다면 上下 兩卷本으로 기획하였던 <상27장본> <이26장본>의 간행 시기는 무신년인 1848년보다는 조금은 앞섰던 것으로 추정된다.²⁰⁾

이제 이들 동양어학교본에 사용된 각자체를 검토하기로 한다. 여기에는 두 종류의 각자체가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는 <상27장본> <이26장본> <삼27장본>에 모두 나타나는 각자체([자료 4] 및 [자료 5] 참조)―― 이를 편의상 각자체A라 지칭한다――이며, 다른 하나는 <이26장본> <삼27장본>에만 나타나는 각자체([자료 6] 참조)―― 이를 편의상 각자체B라 지칭한다――이다. 이들이 각각 사용된 곳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각권의 해당 부분	사용된 각자체	비 고
<상27장본> 제 1장 - 제27장	각자체A	
<이26장본> 제 1장	각자체A	
제 2장 - 제26장	각자체B	
<삼27장본> 제 1장 - 제 9장	각자체B	
제10장 - 제20장	각자체A	
제21장 - 제27장	각자체B	

18) 이는 처음에 上下 兩卷本으로 기획되었다는 점에서 <하26장본>이라고 할 수 있다.

19) 閔 塉, 「조선후기 우화소설의 다층적 의미구현양상」, pp.54-63 및 _____, 「<노섬상좌기>의 간행과 유통에 관련된 문제」, pp.211-29 참조.

20) 이 부분은 <상27장본>의 말미에 간기를 가진 판본을 확인함으로써 가능하겠지만 현재 이에 해당하는 판본을 확인할 수 없기에 아쉬움을 남긴다. 아마도 <삼27장본>의 간행이 이루어지면서 <상27장본>의 제27장 후엽의 북동을 산략하고, <이26장본>의 권차표시인 '권지하'를 '권지이'로 수정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산 설 기
하

Vol. 1

[자료 1]

산 설 기

하

Vol.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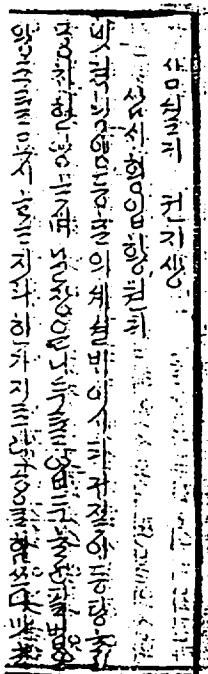
[자료 2]

산 설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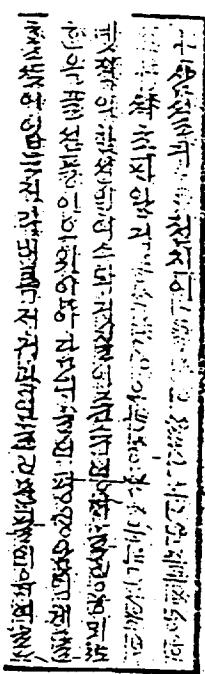
하

Vol.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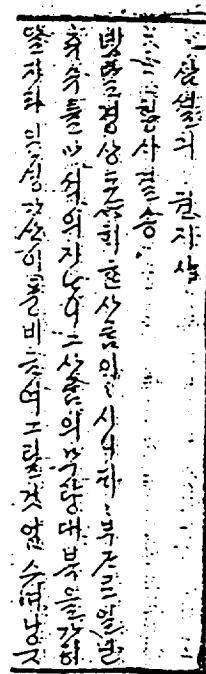
[자료 3]



[자료 4]



[자료 5]



[자료 6]

각자체A는 <상27장본>의 기본이 되는 각자체이며, 각자체B는 <이26장본>의 기본이 되는 각자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처음 <상27장본><이26장본>으로만 구성된 양권본을 기획하였을 때 <상27장본>과 <이26장본>의 간행 주체인 방각소가 각각 독립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먼저 각자체A를 주로 사용하는 방각소A에서 <상27장본>을 판각하고, 각자체B를 주로 사용하는 방각소B에서 <이26장본>을 판각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후 방각소A 또는 다른 방각소에서 삼설기와 관련된 모든 판목을 인수하여 그 체재를 변경하면서 <이26장본>의 제1장을 새로 판각²¹⁾하면서 <이26장본> 제1장의 각자체가 각자체B가 아닌 각자체A가 된 것이다.

실제로 상하 양권본으로 기획된 작품을 두 개의 방각소에서 각각 나누어 간행한 경우를 월봉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월봉기의 경우, 34장으로 간행한 제일권의 말미에는 ‘紅樹洞板’이라는 간기를 남기고 있고, 33장으로 간행한 제이권의 말미에는 ‘由泉新刊’이라는 간기를 남기고 있다. 이는 제일권을 紅樹洞에서, 제이권을 由泉에서 각각 분담하여 방각한 대표적인 경우라 하겠다.²²⁾

<삼27장본>에는 각자체A와 각자체B가 함께 사용되고 있다. 더군다나 각자체A가 사용된 곳의 앞과 뒤에 각자체B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삼27장본>의 판각이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더군다나 각자체A가 사용된 부분의 판심제만이 ‘삼설괴三’으로 판각되어 있고, 각자체B가 사용된 부분의 판심제는 볶으로 가필한듯 먹이 번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제27장에는 장차표시가 ‘二十七’이 아닌

21) 새로 판각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를 추정하여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삼설괴 권지하’로 표시되었던 부분을 ‘삼설괴 권지이’로 바꾸기 위하여 새로 판각하였을 가능성이다. 그러나 ‘하’를 ‘이’로 고치는 것이 훨씬 간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판각하였다는 것은 그 이유가 다른 데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판목의 첫째장(판목의 앞과 뒤에 새긴다는 점에서 제1장과 제2장)이 훼손되어서 이를 보각했을 가능성이다. 이러한 보각이 있기 이전의 상태는 ‘권지하’로 표시된 27장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를 편의상 <하27장본*>이라고 지칭한다. 그러나 현재 <하27장본*>은 전하지 않고 있으며, 그 혼적을 현재의 <이26장본>이 보여준다 하겠다.

22)拙稿, 「京板坊刻小說의 商業的 性格과 異本出現에 對한 研究」, 『冠嶽語文研究』 12, 1987, p.190.

'七'로만 남아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각기 서로 독립되어 있던 판목을 가져와 새롭게 판을 찬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다.²³⁾

여기에서 고려하여야 할 또 하나의 가능성은 <삼27장본>이 <권지사>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는 권수제와 함께 나타나는 권차표시의 형태를 통하여 짐작할 수 있다(앞서 제시한 [자료 6] 참조). 동일한 '삼'이라는 글자가 동일한 행에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①에서 사용된 '삼'이라는 글자와 ②에서 사용된 '삼'이라는 글자는 너무 큰 차이가 있다. 이와 동일한 각자체인 각자체B가 사용된 부분뿐만 아니라 각자체A가 사용된 부분을 통틀어 찾아보아도 ②와 같은 형태의 '삼'이라는 글자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 점을 고려하면 ②의 '삼'은 '삼'이 아닌 '사'에 해당하는 글자에 붓으로 가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 역시 더 이상의 자료 확인이 불가능하기에 그 가능성만을 지적하기로 한다.²⁴⁾

따라서 현재의 동양어학교본 삼설기가 비록 많은 부분에 있어 처음 간행한 삼설기의 모습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선행하는 삼설기 판본이 있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판본의 판목을 가져다가 부분적인 산략과 수정이라는 방법 등을 통하여 현재의 동양어학교본 삼설기가 나타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삼27장본>의 권수제에 나타난 권차가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권지삼'이 아닌 '권지사'라고 한다면 현재의 <삼27장본>은 각자체A로 새겨진 '권지삼'과 각자체B로 새겨진 '권지사'를 가져다가 판을 새롭게 한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할 것이다.

23) 이러한 성격은 이미 기존의 연구에서 충분히 지적된 바 있다. 민찬, 앞의 글들 참조.

24) 필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다면 그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먼저 上下의 체재로 <상27장본>과 <하26장본>이 인행되고 난 후에 <권지삼> <권지사>의 인행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한다. 이 때 <권지삼>은 녹쳐사연회와 다른 단편—이것이 토생전이 아닐까 한다—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권지사>는 황새결송과 노섬상좌기 등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때 판소리의 유행으로 인하여 토생전 부분이 독립하여 별도로 인행되고, 흘로 남은 녹쳐사연회가 <권지사>의 중간에 덧붙여졌던 것이 아닐까 추정된다. 그러나 이는 무수한 자료의 결락으로 인하여 현재 확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27장본>의 중간에 덧붙여진 녹쳐사연회가 다른 두 작품과는 각자체, 행당 자수, 판심제 등에 있어서 뚜렷하게 구분된다는 점(민찬, 앞의 글 참조), 권수제의 '권지삼'이 '권지사'에 가필한 것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그 개연성은 분명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추후 자료의 확인과 더불어서 논의가 가능할 것이며, 여기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에 있다는 점만을 밝혀두기로 한다.

III. 오한근소장본 삼설기 : <상17장본> <이18장본> <삼18장본>

오한근소장본 삼설기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상17장본>²⁵⁾의 권수제 및 권차표시는 ‘삼설기 권지상’으로 나타나며, 반엽 14행, 상화문어미, 판심제는 ‘삼설기上’으로 상백구에 위치하고 있다. ‘삼식횡입황현기’가 제1장 전엽 2행부터 제9장 후엽 4행까지, ‘오후더장기’가 제9장 후엽 5행부터 제17장 후엽 14행까지 서술되어 있다. 이를 <상27장본>과 비교하여 보면 <상27장본>의 제1장 이하 제17장까지의 판목을 사용하여 그대로 인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18장본>의 권수제 및 권차표시는 ‘삼설기 권지이’로 나타나며, 판식은 반엽 14행, 상화문어미, 판심제는 ‘삼설기하’로 상백구에 위치하고 있다. ‘셔초판왕기’가 제1장 전엽 2행부터 제6장 전엽 13행까지, ‘삼조원종기’가 제7장 전엽 14행부터 제18장 후엽 14행까지 서술되어 있다. 이를 <이26장본>과 비교하여 보면 <이26장본>의 제1장 이하 제18장까지의 판목을 사용하여 그대로 인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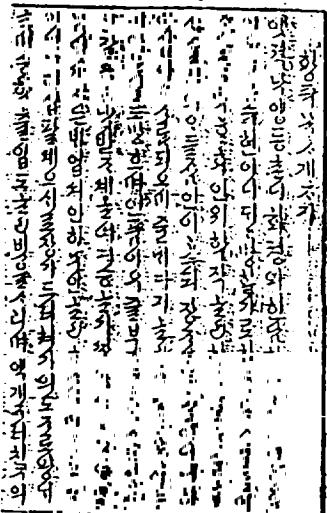
<삼18장본>의 권수제 및 권차표시는 ‘삼설기 권지삼’으로 나타나며, 반엽 14행, 상화문어미, 판심제는 ‘삼설기三’으로 상백구에 위치하고 있다. 먼저 ‘황쥬목스계’라는 제목으로 제1장 전엽 2행부터 제10장 후엽 9행까지 서술하고 이하를 여백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여백에는 계선이 두개 보인다. 이어서 제11장 전엽 1행부터 제18장 전엽 13행까지 ‘노처녀가’가 실려 있고 남은 부분을 여백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를 <상27장본>과 <이26장본>에 실려 있는 ‘황쥬목스계조기’와 ‘노처녀가’와 대비하여 보면 동일한 판목을 일부 산략하여 개각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또한 판심제 역시 ‘삼설기上’ 또는 ‘삼설기하’를 가져다가 ‘삼설기三’으로 수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5) 동일한 판본이 고려대학교 도서관(C15-A140)에 소장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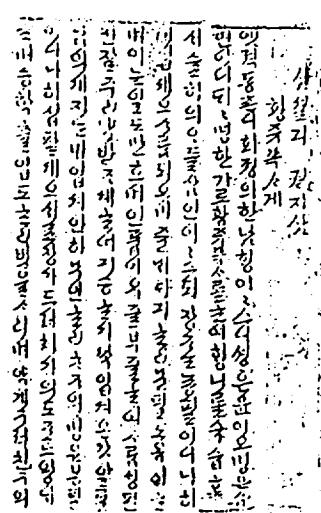
먼저 개각한 부분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A1] // (1)황쥬목스계조고 / (2)옛적 난양 동촌 니화정의 한 남힘이 : 스되
성은 윤이오 명은 슈현이니 더 : 명한가로 황쥬목스를 헌여 / (4)
수운숙복호 후 인위학직호고 힙니를 슈습흘/(5)식 슬하의 오들 삼인이
이 : 스되 장조는 농필이니 나히 / (6)이십세오 (하략) <상27장본>
[18a] ([자료 7] 참조)

[B1] // (1)삼설기 권지삼 / (2)황쥬목스계 / (3)옛적 동촌 니화정의 한 남힘이 : 스니 성은 윤이오 명은 슈 / (4)현이니 더 : 명한가로 황쥬목스를
헌여 힙니를 슈습흘/ (5)식 슬하의 오들 삼인이 : 스되 장조는 농필이
니 나히 / (6)이십세오 (하략) <상17장본> [1a] (1:19)²⁶⁾ ([자료 8] 참
조)



[자료 7]



[자료 8]

[B1]의 제1행 이하 제4행까지가 개각된 것은 <상27장본>의 세번째 작품으로 실려 있던 '황쥬목스계조고'를 분권하여 권수로 삼기 위해 나타난 현상이라 하겠다. 왜냐하면 '오후더장고'에 계속 연결하여 서술한 <상27장

26) 밑줄 친 부분은 각자체의 변화가 있는 부분으로 개각한 곳이다.

본>의 경우, 편명인 ‘황쥬목스계조기’가 제1행에 위치하고 제2행 이하에서 작품의 서술이 이루어짐에 비하여, 이를 가져다가 <상17장본>으로 새롭게 분권하기 위하여는 제1행에 ‘삼설기 권지삼’이라는 권수제와 권차표시를 독립시켜야만 하고, 제2행에 ‘황쥬목스계’라는 편명을 새겨야만 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이하 총 3행에 서술된 내용을 총 2행으로 축약하여 개작하는 작업을 또한 필요로 한다. 이같은 변모는 분권 체재의 변모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삼18장본>의 제18장 곧 ‘노처녀가’의 마지막장은 번각한 부분으로 보인다. 이러한 번각 과정에서 오각이 몇몇 나타나는데 ‘오날이야 알거고나 이리트시’를 ‘오날이야 알커고나 언러로시’로(2행), ‘이전의 잇던 / 모음 이제록 성각호니’를 ‘이전의 잇던 / 소음 이례록 성각호니’(5-6행)로 오각한 것이 그 예이다. 또한 제17장의 판심제 역시 ‘삼설기하二’를 ‘삼설기三’으로 수정하여 번각한 것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오한근 소장본인 <상17장본> <이18장본> <삼18장본>은 <상27장본> <이26장본>의 판목을 그대로 가져다가 이를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분권 체재를 달리하여 인행한 것이라 하겠다. <상17장본>은 <상27장본>의 제1장 이하 제17장까지의 판목을 가져다가 조금도 수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간행한 것이며, <이18장본> 역시 <이26장본>의 제1장 이하 제18장까지의 판목을 가져다가 조금도 수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간행한 것이다. 반면에 <삼18장본>은, <상27장본>의 제18장 이하 제27장까지의 판목을 가져다가 제18장의 처음 4행을 개각, <삼18장본>의 제1장 이하 제10장으로 삼고, 또한 <이26장본>의 제19장 이하 제26장까지의 판목을 가져다가 제11장 이하 제18장으로 삼아 간행하려 하였으나 어떤 이유인지 명확하지는 아니하나²⁷⁾ 제18장에 해당하는 노처녀가의 마지막장만은 기존

27) 대영박물관본 <하36장본>과의 관계에서 보면 이 부분은 대영박물관본의 제26장에 해당한다. <이26장본>의 제26장이 훼손 또는 분실로 인하여 떨어져 나가게 됨에 따라서 이 부분을 번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 판목의 앞뒤에 각 1장을 새겨 판목 한 장에 두 장 분량의 내용이 새겨진다는 기본 전제를 수용한다면 제26장만의 독립을 생각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이것의 뒷면에 제25장의 내용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실 등으로 인한 번각이 나타난다면 제26장만이 아닌 제25장 역시 번각해야만 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26장본>의 제1장이 각자체A로 새겨져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1장의 내용은 위래 두 장에 해당하는

의 인행본을 판하본으로 삼아 번각하여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 기존 판목의 판심에 새겨져 있던 판심제와 장차표시를 모두 수정하였다.

결국 동양어학교본 삼설기 체재에서 오한근소장본 삼설기 체재로의 변모는 권당 26장 또는 27장이라는 체재에서 권당 17장 또는 18장이라는 체재로의 변모로서, 두 권의 책을 세 권의 책으로 분권 체재를 변모시킨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분권 체재의 변모는 궁극적으로 매권의 장수를 줄인다는 의미를 지니며, 매권의 장수를 축소하려는 노력은 당대의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겠다.

IV. 대영박물관본 삼설기 : <하26장본>

<하26장본>의 권수제 및 권차표시는 '삼설기 권지하'로 나타나며, 판식은 반엽 14행, 상화문어미이다. 판심제는 '삼설기'(황식결송 부분), '삼설기 三'(녹쳐소연회 부분), '삼설기하'(노섬상좌기 부분)로 나타난다. 판심제가 '삼설기 三'으로 나타나는 곳은 '녹쳐소연회'가 수록되어 있는 부분이다.²⁸⁾ '황식결송'이 제1장 전엽 2행부터 제10장 전엽 5행까지 서술되고, '녹쳐소연회'가 제10장 전엽 6행부터 제20장 후엽 3행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이하 '노섬상좌기'가 수록되어 있다. 그 가운데 제21장이 누락되고, 대신 제22장 이하에 해당하는 부분을 각각 제21장 이하의 순서로 장차표시를 수정하고 있다.²⁹⁾ 마지막 장인 제26장 역시 전엽만으로 끝나고 있는데, 이것도 노섬

내용을 축약하여 한 장으로 새긴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본다면 <이26장본>의 제2장과 제3장이 두번째 판목에, 제24장과 제25장이 열세번째 판목에, 그리고 번각된 부분인 제26장이 열네번째 판목에 해당한다 하겠다.

28) 공교롭게도 <삼27장본>의 판심제 가운데 볶으로 가필하지 아니한 이 부분만이 '三'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녹쳐사연회 부분만이 매행 22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녹쳐사연회>'는 <황새결송>과 <노섬상좌기>의 가운데에 비집고 들어온 작품으로 추정'되며 '1848년 이후의 어느 시기에 덧붙여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지적(민찬, 「조선후기 우화소설의 다층적 의미구현양상」, pp.61-2 참조)은 이 부분의 판심제만이 뚜렷하게 '三'으로 표시된 이유에 대한 해결의 가능성을 보인 것이라 하겠다.

29) 21장이 누락되어 있기에 전체는 27장이라고 할 수 있으나, 누락된 부분을 대신하여

상좌기의 마지막 장이 아닌 노처녀가의 마지막장—<삼18장본>의 마지막 장이 아닌 <이26장본>의 마지막장—을 가져다 사용하였다. 그리고 노처녀가의 마지막장을 가져다 사용한 이 곳의 판심제는 ‘삼설괴하二’가 아닌 ‘삼설괴하’로 나타나고 있다.

<삼27장본>과 <하26장본>을 대조하여 살펴보면 <하26장본>은 <삼27장본>의 판목을 가져다가 일부 수정하여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삼27장본>과 달리 권차표시를 ‘권지삼’ 대신 ‘권지하’로 수정하고 있는 점, 제1장부터 제9장까지와 제21장부터 제25장의 판심제를 ‘삼설괴三’ 대신 ‘삼설괴’로 수정—이는 <삼27장본> 부분이 ‘삼설괴’에 ‘三’을 붙으로 가필한 것이기에 수정한 것이 아니라 본래의 판목에 새겨진 모습이라고 하겠다—하고 있는 점, <삼27장본>의 제21장을 누락시키고 제22장 이하를 제21장 이하로 장차표시를 수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이26장본>의 제26장을 가져다가 판심제만을 ‘삼설괴하二’ 대신 ‘삼설괴하’로 수정하여 <하26장본>의 제26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이 <하26장본>과 <삼27장본>의 다른 점이라 하겠다.

결국 <상27장본> <이26장본>의 판목을 가져다가 일부를 수정하거나 번각하여 <상17장본> <이18장본> <삼18장본>의 판목으로 삼아 분권체재를 달리하여 인행하고, 그 결과 남게 된 <삼27장본>의 판목을 가져다가 인행한 것이 <하26장본>이다. 이 때 <이26장본>의 제26장에 해당하는 노처녀가의 마지막장을 <하26장본>에 사용하게 됨에 따라서 <삼18장본>의 제18장을 새로 번각하여서 간행한 것이다.

그렇다면 <하26장본>을 간행할 때 누락된 <삼27장본>의 제21장의 내용이 수록된 판목은 어떻게 된 것일까? 이는 매우 심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제21장의 내용이 수록된 판목의 훼손은 결국 그 앞의 온전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황식결송’과 ‘녹쳐수연회’만을 녹립시킨 새로운 분권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결과 나온 것이 현재의 금수전이다. 또한 제21장의 훼손은 토생전에 ‘노섬상좌괴’를 수용할 때 해당 부분을 번각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하26장본>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 <삼27장본>의 제27장 판목

다음 장부터 계속하여 장차표시를 고치고 있기에 <하26장본>이라 지칭한다.

의 훠손 여부이다. 이는 토생전의 인행에 사용되었기에 훠손되거나 분실되지는 아니하였다. 다만 <하26장본>의 인행에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뿐이다. 이에 대하여는 토생전을 다루는 부분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다.

V. 금수전 <20장본>의 검토

금수전 <20장본>의 권수제 및 권차표시는 '금수전 권지단'으로 나타나며, 반엽 14행, 상화문어미, 판심제는 '심'으로 상백구에 위치하고 있다. 판심제 '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일견 불명확해 보인다. 하지만 이를 삼설기 <삼27장본> 및 <하26장본>과 비교하여 살피면 판심제 '삼설고' 또는 '삼설고三'의 '삼'을 '심'으로 수정 산략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황식결송'이 제1장 전엽 2행부터 제10장 전엽 5행까지, '녹쳐스연회'가 제10장 전엽 6행부터 제20장 후엽 3행까지 서술되고 있으며 남은 부분은 여백으로 남아 있다. 이는 <하26장본>에 사용된 판목을 가져다가 권수제 및 권차표시 부분을 수정하고 아울러 제20장 후엽 4행부터 수록된 '노섬상좌기'의 부분을 산략하여 마무리한 것이다. 이러한 산략에 의한 판목의 훠손은 '노섬상좌기'를 '토성전'에 덧붙일 때 훠손된 부분을 번각하도록 하였다.

VI. 토생전 <16장본>의 검토

토생전 <16장본>의 권수제 및 권차표시는 '토성전 권지단'으로 나타나며, 반엽 14행, 어미와 판심제는 불명확하다.³⁰⁾ '토성전'이 제9장 후엽 3행까지, '노섬상좌기'가 제9장 후엽 4행부터 제16장 전엽 6행까지 서술되고, 남은 여백에 두 개의 계선이 있다. 이 두 개의 계선 사이에 '戊申十一月—

30) 김동옥의 전집에는 이를 상혹어미로 해제하고 있다. 노섬상좌기 부분의 판목 유래를 고려한다면 노섬상좌기 부분의 어미는 상화문어미가 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제15장에 일부 나타나고 있는 어미의 모습은 분명한 상화문어미이다.

由洞新刊'이라는 간기가 새겨져 있다.³¹⁾

토생전이 수록된 부분 중 제1장 이하 제8장까지는 침자리가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그러나 토생전 마지막 부분이 수록된 제9장의 경우에는 침자리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침자리가 나타나지 아니한 것은 이 부분이 보각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또한 이 부분은 노섬상좌기의 시작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앞서 금수전 <20장본>을 검토하는 자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녹처사연회의 서술이 끝나고 남는 부분을 이미 산략한 것이기에, 기존의 해당 판목은 이미 폐손되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노섬상좌기의 시작 부분을 새롭게 번각할 필요가 생기게 된 것이다.

이처럼 토생전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침자리가 없어졌다는 점에서 판형의 변화가 나타난 부분이고, 노섬상좌기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번각이 필요한 부분인 제9장은 결국 원래의 판목을 사용한 것이 아닌 보각된 판목이라 하겠다.

노섬상좌기의 시작 부분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나타난다.

[C1] / (4) 〔노섬상좌기 / (5) 편하 명산이 : 스되 명 월 화월산이라 고이호
부회와 셋 / (6) 〔 〕 외부리의 고화요최 무성하고 수시로 인적이 업스
(7) 비 오직 온갓 즘성이 문휘하여 밤이면 정처업시 업되 / (8) 여 즈며
세월을 보너니 그 중 노루는 본터 산천 정기률 / (9) 쿠슈하여 가장
비상호니 계숙이 넓으기를 장선성 / (10) 이라 흐더니 계족 월 윤거하고
심히 훈열하여 견되기 실 / (11) 노 어려오미 모든 즘성을 모화 흐르는
폭포 빗하서 목 / (12) 유흘서 선성 월 우리들이 : 〔의 모하여 놀미 빗
죽 모 / (13) 양은 다르나 정의는 긴격이 업는지로 이제 놀기는 조호
(14) 나 터만 쿠는 쳐쇼를 정씩 못한여스니 오늘 우연이 만히 / (하략)
<20장본> [9b] (3:373)

31) 여기에는 또한 윗으로 '定價金新貨五錢 戊申十一月 由洞新刊' 무신 십일월 일 유동
신간 '定價韓貨十箇'이라 가필되어 있다. 이는 신화와 구화가 1대 2의 비율로 교환되는
화폐개혁인 <광무9년의 화폐개혁>과 관련된다. 특히 위에서 新貨라 하지 아니하고
金新貨라고 표현한 것은 처음으로 실행된 금본位제도에 근거한 新貨임을 밝히는 것이라 하겠다. 그 결과 1905년 7월 1일부터 1908년 5월까지 신구화의 교환이 있었다. 여기에서 신화와 구화를 함께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신구화가 동시에 통용
되던 기간인 1905년에서 1908년 사이의 책 가격을 살릴 수 있는 기록이며, 토생전
<16장본>의 인행시기가 20세기에 해당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崔虎鑑, 「韓國
貨幣小史」, 서문문고 131, 1974, pp.220-47 및 金玉根, 朝鮮王朝財政史研究[IV],
一潮閣, 1992, pp.152-69 참조.

[D1] /(4)○노섬상좌과 /(5) 턴하 명산이 : 스되 명 월 화월산이라 끼이호
 벽회와 쌩/(6)혀난 외부리의 괴화요최 무성하고 수시로 인적이 업스
 /(7)미 오직 온갓 즘성이 둔취하여 밤이면 경처업시 업되/(8)여 주며
 세월률 보너더니 그 중 노루는 본더 산천 경괴률 /(9)풀슈호여 가장
 비상호니 제죽이 넓으기률 장선심/(10)이라 헌더라 일 : 은 일과 심히
 훈열호여 견되기 실/(11)노 어려오미 모든 즘성을 모화 흐르는 폭포
 맛허서 목/(12)욕홀식 선심 월 우리들이 : 곳의 모하여 놀미 비록 모
 /(13)양은 다른나 정의는 간격이 업는지라 이제 놀기는 조호/(14)나
 다만 조는 쳐쇼를 경치 못호여스니 오늘 우연이 만히//(하략) <하26
 장본> [20b] (4:269)³²⁾

결국 토생전에 수록된 노섬상좌기의 해당 부분인 [C1]은 <하26장본>의 판목을 가져다가 금수전으로 분권하는 과정에서 산략한 부분이기에 위와 같은 번각의 양상을 보이게 된 것이라 하겠다.³³⁾

또한 <하26장본>에 누락되었던 <삼27장본>의 제21장과 토생전 <16장본>의 제10장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 역시 번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실제 <삼27장본>의 제21장을 토생전 <16장본>의 제10장과 비교하여 보면, 전엽 8행에서 '그곳이 과연 죽타 :: 헌거늘'을 '그곳이 과연 죽타 □□ 헌거늘'로 새긴 것, 후엽 2행에서 '업거니와 헌번'을 '업니□□ 헌번'으로 새긴 것에서 번각의 혼적을 찾을 수 있다.

결국 토생전에 수록된 노섬상좌기의 판목은 <삼27장본>으로 사용하던 판목을 가져다가 사용한 <하26장본>의 판목 가운데 금수전 <20장본>을 인행하는데 사용한 판목을 제외한 남은 판목을 수용하고, 필요한 부분을 번각하여 인행한 것이라 하겠다. 이 때 문제가 되는 것은 간기가 새겨진 마지막 장의 번각 여부인데, 이 부분은 <하26장본>에 보이지 않던 것이다.³⁴⁾ <삼27장본>의 제27장과 토생전 <16장본>의 제16장을 상세히 대조하면 동일한 판목으로 인행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근거로는 먼저 변의 훠손 양상이 일치하고 있다는 점, 계선 중간의 단선이 발생하는 곳이 일치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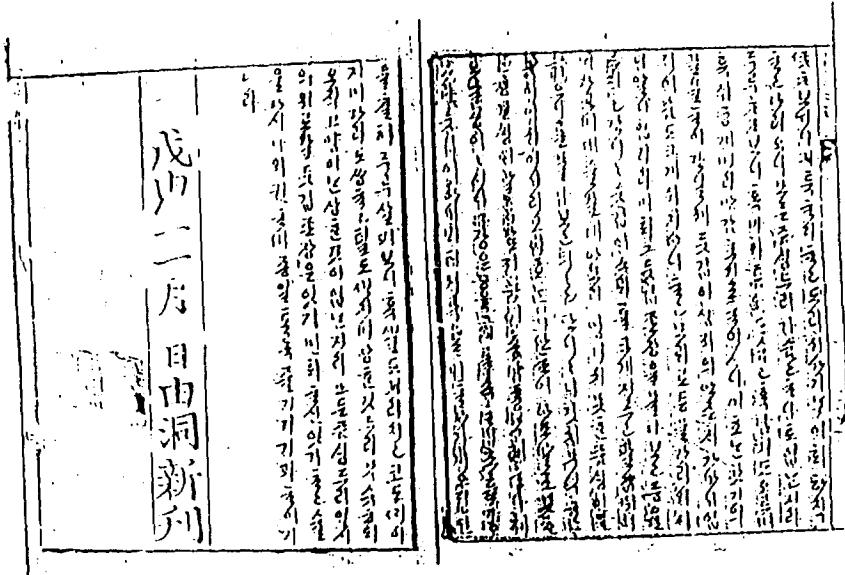
32) 이는 <삼27장본>의 [20b]와 동일하다.

33) 이러한 차이는 민 찬, 「조선후기 우화소설의 다층적 의미구현양상」, pp.54-63에서 상세히 지적된 바 있다.

34)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하26장본>에서는 간기가 있는 노섬상좌기의 마지막 장 대신에 노처녀가의 마지막 장인 <이26장본>의 제26장을 가져다 사용하고 있다.

고 있다는 점, 판목의 균열로 인하여 갈라진 글자가 일치하고 있다는 점, 두번째 계선 좌측에 남은 묵흔이 일치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허나 간기 부분의 글자체가 조금 다른 느낌을 주는데 이는 인쇄한 것이다. 허나 간기 부분의 글자체가 조금 다른 느낌을 주는데 이는 인쇄한 것이다. 허나 간기 부분의 글자체가 조금 다른 느낌을 주는데 이는 인쇄한 것이다. 허나 간기 부분의 글자체가 조금 다른 느낌을 주는데 이는 인쇄한 것이다. 허나 간기 부분의 글자체가 조금 다른 느낌을 주는데 이는 인쇄한 것이다. 허나 간기 부분의 글자체가 조금 다른 느낌을 주는데 이는 인쇄한 것이다. 허나 간기 부분의 글자체가 조금 다른 느낌을 주는데 이는 인쇄한 것이다.

<삼27장본>의 마지막 부분을 제시하면 [자료 9]와 같다.



[자료 9]

토생전이 수록된 부분에서도 몇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미 지적된 바 있다. 먼저 제7장과 제9장의 각자체가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점, 이 역시 보각된 부분으로 제7장은 원래 '오봉산 토끼삽화'가 포함되어 있어야 할 부분이며, 제9장은 '용왕의 성대한 장례식 장면'이 포함되어 있어야 할 부분이다. 또한 제6장 후엽에 있어서 '가장 단: 흐다 흐고 봉호 여 토공을 삼고' 부분에 있어서도 내용상 탈락이 있다는 점이다.³⁵⁾

35) 민 찬, 「조선후기 우화소설의 다층적 의미구현양상」, pp.205-6; 정출현, 「조선후기

이러한 사실은 결국 현전하지 아니하는 토생전을 판하본으로 삼아 새롭게 필사하여 개각한 토생전의 판목을 가져다가 이를 부분적으로 수정 또는 보각하고, 삼설기에서 사용하던 노섬상좌기 부분의 남은 판목을 가져다 이를 수정 또는 번각하여 두 작품을 함께 묶어 간행한 것이 바로 현전 '토성전 권지단'이라는 권수체를 가진 토생전 <16장본>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 책의 말미에 있는 간기는 '토성전 권지단'의 판각시기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노섬상좌기'의 말미에 붙어 있었던 것으로 삼설기 <삼27장본>의 간행시기—좀더 염밀하게는 '황시결송' 및 '노섬상좌기'의 간행시기—를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VII. 結論 : 판본의 선후관계

결국 본래적 의미에 있어서 <삼설기>라는 명칭은 '每卷 三說'이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단편소설집의 명칭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每卷 三說'이 아닌 '每卷 二說'이라는 체재로의 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三說記에서 二說記로의 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삼설기>라고 지칭하고 있음은 삼설기의 의미가 '세 가지 이야기'에서 '짧은 이야기' 곧 단편소설이라는 의미로 변모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 점에서 본다면 여기에서 함께 검토한 금수전과 토생전 역시 '짧은 소설'의 모음이기에 결국 三說記類(?)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의 변모는 결국 活版本 소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삼설기' '별삼설기' 등의 명칭으로까지 확대된다 하겠다.

지금까지 논의된 삼설기의 판본 변모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삼설기는 각자체A를 사용하는 방각소와 각자체B를 사용하는 방각소에서 각각 <상27장본> <이26장본>이라는 상하 양권본의 체재로 인행되었다. 이 때 <이26장본>은 <하27장본*>의 형태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삼27장본>의 각자체B를 근거로 하여 살핀다면, <이26장본>의 선행본인

우화소설의 사회적 성격,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2, pp.227-233; 인권환, 「토끼전의 비교고찰」, 『인문논집』 29, 고려대, 1984, p.11 참조.

<하27장본*>은 由洞이라는 방각소에서 인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새로운 삼설기에 대한 독자의 요구는 마침내 由洞에서 <삼27장본>을 판각—이에 선행하여 제삼권(황새결송과 노섬상좌기 등이 수록된 삼설기)과 제사권(녹처사연회 등이 수록된 삼설기)의 판목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 판목을 가져다 수정한 것이 현재의 <삼27장본>의 판각에 해당한다—하여 이것 역시 삼설기에 포함시키게 되었다. <하27장본*>의 권수 제로 추정되는 '권지하'를 '권지이'로 수정하기 위하여 <하27장본*>의 제1장과 제2장에 해당하는 내용을 각자체A로 새롭게 판각하여 <이26장본>의 제1장으로 삼았다. 이 때 <삼27장본>은 권수제의 권차를 '권지삼'으로 하여 인행하였다. 이는 기존의 상하 양권본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권이 추가되는 것이기에, 상-하-삼의 체재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상-하-중의 체재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곧 <삼27장본>을 상중하 삼권본의 중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이러한 혼적이 동양어학교본의 표지에 표시된 제첨의 권차와 권수제에 표시된 권차의 차이를 가져왔다.

이후 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말미암아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상27장본> <이26장본>을 <상17장본> <이18장본> <삼18장본>으로 분권 체재를 달리하여 인행하고, 분권 체재의 변모로 인하여 홀로 남게 된³⁶⁾ <삼27장본>은 판목의 훼손으로 말미암아 <하26장본>이라는 불완전한 형태로 인행되기도 하였다. 불완전한 판목인 <하26장본>은 앞의 두 작품을 분리하여 금수전 <20장본>으로 변모되어 인행되었고, 금수전에 포함되지 않아 남게 된 판목은 기존의 토생전의 남은 판목에 덧붙여져 토생전이라는 이름으로 인행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변화의 와중에 필요한 곳을 산략하기도 하고 판목의 보충이 필요한 곳은 번각을 하기도 하여 나름대로 완성된 책자의 형태를 갖추려 한 것이 현재의 토생전 <16장본>이다.

36) 그러나 <상27장본> <이26장본>을 각권의 장수를 줄인 새로운 삼권본의 체재인 <상17장본> <이18장본> <삼18장본>으로 변모시킨 것과 <삼27장본>을 금수전 <20장본>으로 변모시킨 것, 이 둘 가운데 어느 것이 먼저 이루어졌는지는 현재 명확하지 아니하다 여기에서는 전자가 먼저 일어난 것으로 가정한다.